

황서국서 어매장군(御侮將軍).¹⁾ 짐씨영감(金氏令監) 그영신내 브름 우로 들어상 앞인 삼천백매 뒤엔 일만초깃발. 책(冊)지기²⁾ 붓(筆)지기 문세(文書)지기 도감(都監)지기 이 묵슬(里) 장적 호적(帳籍戶籍) 초지한 한집님.

난시본산국은 서울 황정싱(黃政丞)의 아들(子)이 식성제(三兄弟) 이십데다. 황정싱이 병(病)이 드난 백약(百藥)이 무효(無效)뉘고 지냥으로³⁾ 줌(占)을 치난 황우설(黃牛血)을 받아 먹어사 병(病)이 낫게 뉘데다.

도쟁이 피쟁일⁴⁾ 불러 잡젠⁵⁾ 허여도 황정싱이 역적(逆賊)에 몰려 노난⁶⁾ 나라의서 황정싱(黃政丞)이 황우설(黃牛血)을 먹으면 살아나 카부덴⁷⁾ 문딱⁸⁾ 잡아단 가쳐부난⁹⁾ 피쟁이 도쟁이(屠匠)이 엇어진다.

아들이나 불령 잡아도령 허여 보카.¹⁰⁾ 큰아들 불려도 응(應)도 강(感)토 아니히고 셋아들(次男) 불려도 응도 강토 아니히니, 족은 아달(末男) 불려다 황우설(黃牛血) 받아오랜 말씀하난 족은 아달이 부물 살려사키엔¹¹⁾ 참쌀로¹²⁾ 황우(黃牛)야겔¹³⁾ 걸런 고암(高喊)을 지르난 쉼(牛)가 놀레연¹⁴⁾ 나오니, 대한간의서¹⁵⁾ 황우설(黃牛血)을 받아단 아바님을 드립데다.

아바님이 살아나고 말씀하뉘

『너는 역적(逆賊)에 몰려¹⁶⁾ 이디 살 수가 엇일 거니 어서 피란(避難)하라.』

피란을 오는디 제주를 상(向)허여 오라 골막(東福里)으로¹⁷⁾ 들언 장군설(將軍血)을¹⁸⁾ 디디고 나려오단 보난 심돌(始興里)¹⁹⁾ 허풍언(許風憲)이 풍언(風憲) 살레²⁰⁾ 감시난²¹⁾ 참매로²²⁾ 환싱(還生) 허여 앞의 들언 어지리난²³⁾ 허풍언이 말을 하느디

『어떤 짐승이 앞의 너미²⁴⁾ 번람(煩亂)하다.』

큰 소리를 지르난

1) 어매장군(御侮將軍): 이 당의 당신명.

2) 책(冊)지기: 책을 지키는 이.

3) 지냥으로: 자기대로.

4) 피쟁일: 백정을.

5) 잡젠: 잡자고. 잡으려고.

6) 노난: 놓으니.

7) 카부덴: 살아날까보다고.

8) 문딱: 모두.

9) 가쳐부난: 가두어 버리니.

10) 보카: 잡아달라고 해 볼까.

11) 살려사키엔: 살려야겠다고.

12) 참쌀로: 참실로.

13) 황우(黃牛)야겔: 모가지를.

14) 놀레연: 놀라서.

15) 대한간의서: 대청에서. 상바앵서의 뜻.

16) 몰려: 몰려.

17) 골막(東福里)으로: 구좌면 동북리(舊左面東福里).

18) 장군설(將軍血)을: 지리 풍수설(地理風水說)적으로 장군이 날 지맥.

19) 심돌(始興里): 성산면 시흥리(城山面始興里)

20) 살레: 살려.

21) 감시난: 가고 있으니.

22) 참매로: 참매.

23) 어지리난: 어지르니까. 어지럽히니까.

24) 너미: 너무.

『그만하민 풍헌(風憲) 살만 하다.』

허여 비싸고²⁵⁾ 장군설(將軍血)을 디디여 종달리(終達里) 서무오름²⁶⁾ 오라 좌정(坐定)하카 허연²⁷⁾ 보난 예즈(女子)덜이 모살삼태²⁸⁾ 들고 소곰(鹽)을 허염시난²⁹⁾

『너미 강포(強暴)하다. 좌정할 디 못되다.』

허여 나아사고 보니 심돌(始興) 큰물머리로³⁰⁾ 장군설(將軍血)이 떨어져시난 이디나 좌정하카 허연 와 보니 허풍헌(許風憲)이 불써³¹⁾ 산(墓)를 써 부러시난³²⁾

『못 쓰겠다. 올라사자.』

손당(松堂) 높은오름³³⁾ 올라사 옥통저(玉洞簫)로 날 새고 밤 새고 놀단³⁴⁾

『영 허여도³⁵⁾ 못쓰겠다. 할락산(漢拏山)을 올라가자.』

오백장군(五百將軍) 오백선성(五百先生) 구경(求景)하코 인간(人間)을 등경³⁶⁾ 느려사저. 장군설(將軍血)을 디디니. 장군설이 정윳골(旌義縣)³⁷⁾ 명동³⁸⁾ 무루에³⁸⁾ 떨어져시난 그디 오라³⁹⁾ 앓아 보니 정윳골(旌義縣) 관개(官家)덜이 죄인(罪人)을 심어단⁴⁰⁾ 답달하는 게 문에 베여.

『이것도 더럽고 추접하다.』⁴¹⁾

장군설을 다시 보니 난미(蘭山里)로⁴²⁾ 떨어져시난 난미(蘭山)로 느려오라 보니. 골미당이⁴³⁾ 잊 어지니.

『이것도 더러와 못쓸로다. 와갱이(三達里)로 느려가자.』

와갱일 오란 보난⁴⁴⁾ 『빈촌(貧村)은 빈촌이라도 좌정(坐定)할 만하다. 매민물도⁴⁵⁾ 좋아지고 베 릿물(硯水)도 좋아지고 식숫물(洗手水)도 좋아지고.』

당폴엘⁴⁶⁾ 간 보니. 짐씨영감(金氏令監)이 병(病)들언 죽어 감시난⁴⁷⁾ 뒤의⁴⁸⁾ 큰낭⁴⁹⁾ 상가지(上枝)에 앓안 꿈에 선몽(現夢)을 드리웁

『백돌레예⁵⁰⁾ 벅시리예⁵¹⁾ 즈소지(燒酒)에 너의 집 상고팡(上庫房)으로 우판(位版) 모상⁵²⁾ 우로

25) 비싸고: 비끼고.

26) 서무오름: 서무오름은 조천면 함덕리(朝天面咸德里)와 북촌리(北村里). 경계악(境界岳)인데

27) 허연: 할까 해서.

28) 모살삼태: 모래 나르는 삼태기.

29) 허염시난: 하고 있으니.

30) 큰물머리로: 시흥리(始興里)의 지명.

31) 불써: 벌써.

32) 부러시난: 버렸으니까.

33) 높은오름: 구좌면 송달리(舊左面松堂里)의 악명(岳名).

34) 놀단: 놀다가.

35) 허여도: 이리해도.

36) 등경: 당기어. 이 구(句)는 인간이 사는 마을로 가까이 내려서고자의 뜻.

37) 정윳골(旌義縣): 지금의 표선면 성읍리(表善面城邑里).

38) 명동³⁸⁾ 무루에: 성읍리(城邑里)의 지명.

39) 오라: 거기 와서.

40) 심어단: 잡아다가.

41) 추접하다: 더럽다. 추잡.

42) 난미(蘭山里)로: 성산면의 이명(里名).

43) 골미당이: 난산리(蘭山里) 당명(堂名)인데 쉼당(牛堂)이라 하여 하시(下視)한 것임.

44) 보난: 와서 보니.

45) 매민물도: 미상.

46) 당폴엘: 당이 있는 곳.

47) 감시난: 가고 있으니까.

48) 뒤의: 뒤에. 집 뒤의 뜻.

49) 큰낭: 큰 나무.

50) 『백돌레예: 흰 도래떡.

51) 벅시리예: 흰 시루떡.

52) 모상: 모셔서.

(慰勞)하민 널 살려주마.』

짐씨영감(金氏令監)이 기영 허연⁵³⁾ 위로(慰勞)하난 병(病)이 낫아⁵⁴⁾ 살아나고 상통천문(上通天文) 하달지리(下達地理)해야 죽을 사람 살 사람 다 알아 아이 궤로와도⁵⁵⁾ 어른 궤로와도 짐씨영감(金氏令監) 영급(靈及)이 좋아 살려지니, 돈을 어이에⁵⁶⁾ 버슬언⁵⁷⁾ 거부재(巨富者) 뵈데다.

그 때 아옴해 숭년(九年凶年)이 저 조손⁵⁸⁾ 가정(子孫家庭)덜이 다 굶어 죽게 뵈여가난, 짐씨영감(金氏令監)이 혼집의 닛웨(五升)씩 혼말(一斗)씩 스제분급(私財分給)을 주난 굶어 죽단⁵⁹⁾ 백성(百姓)이 살아납데다.

나라에서 이 사실(事實)을 알아네⁶⁰⁾ 짐씨영감(金氏令監)을 불러단

『죽어가는 조손덜 스제분급(私財分給)허연 살려줘시니 통정대부(通政大夫) 베슬을 주마.』

받아아전⁶¹⁾ 오라네⁶²⁾ 그대로 조손 가정(子孫家庭)덜 짐하명 살단,⁶³⁾ 늙어 죽게 뵈난 나라레⁶⁴⁾ 보고(報告)하니

『신체(身體)는 죽어도 신시는⁶⁵⁾ 내여주마.』

허연, 밤낭(栗木)으로 신시를 무언⁶⁶⁾ 내여줍데다. 「황서국서어매장군 두부처(兩夫妻)하고 신시를 내여주니 전대조손(傳代子孫) 데데유전(代代遺傳)허여 우양적선(爲養積善)하라」 허여 위하는 한집님.

앞인 삼천벵매 뒤편 일만초깃발.

- 城山面 新山里 女巫 金永善 口誦

현용준, 『제주도 무속자료사전』, 신구문화사, 1980, pp.689-693.

53) 허연: 그리해서.

54) 낫아: 나아.

55) 궤로와도: 괴로와도. 곧 앓아도의 뜻.

56) 어이에: 잠깐 사이에.

57) 버슬언: 벌어서.

58) 조손: 이 당신을 숭앙하는 단골(信仰民).

59) 죽단: 죽던.

60) 알아네: 알아서.

61) 받아아전: 받아가지고. 받아서.

62) 오라네: 와서.

63) 살단: 점하며 살다가.

64) 나라레레: 나라로. 나라에.

65) 신시는: 신위.

66) 무언: 만들어 의 뜻.